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17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89년 12월~90년 3월분으로 다음 17종의 도서가 뽑혔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1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 모두 5,100부를 구입, 전국 각지방의 문화원 118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공공도서관 등 300곳에 배포했다.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과학기술연구단지 대변인)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지구에서 퀘이사까지

민영기 지음



“하잘것없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를 조명하고, 우주에 도전하는 인간의 용감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씌어진” 개론서적 성격의 우주과학 교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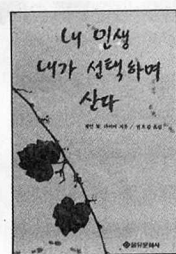
각종 신문·잡지 등에 연재, 기고했던 글 80여편을 모으고 그밖의 최근 정보를 포함하여 한권에 묶었다.

‘태양계의 천체들’ ‘항성과 은하계’ ‘은하와 우주’ ‘천체관측과 망원경’ ‘외계의 생명체’ ‘우주와 인간’ ‘우주개발’ ‘별자리’ 등 모두 8부로 구성돼 있으며, 풍부한 참고사진과 권말의 충실한 ‘찾아보기’가 돋보인다.

범양사출판부 / A5신 / 334면 / 4000원

내 인생 내가 선택하며 산다

웨이 W. 다이어 지음 / 권오갑 옮김



미국현지에서 1년 이상 베스트셀러로서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의 「Your Erroneous Zone」의 우리말 번역본. 원제의 ‘착각지대’란 유대교와 기독교

문화권이 만들어낸 관습이나 전통적 사고방식 가운데 자기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저자에 의하면 현대인의 고민의 대부분은 그같은 문화권의 규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아울러 그런 착각과 고민의 치유를 위해 저자는 약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제시한다.

울유문화사 / A5신 / 274면 / 3000원

자연의 탐구자들

정해상 엮음



선사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자연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고 이용돼 왔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 개략적 서술의 입문서적 성격이

교양과학도서로서의 장점을 갖게 하면서도, 자연을 연구하는 근본태도에 대한 핵심적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름없는 원시인부터 현대의 저명한 과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자연의 신비를 풀어내려 노력한 학자들의 도전과 결실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도판을 수록한 것도 특징.

경지사 / A5신 / 220면 / 3500원

原點에 서서

鄭漢模 지음



생명과 생명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원초적 그리움의 시적 지향 속에 추구해온 원로시인(현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신작시집. 시인의 甲年이었던

1983년에서 대학에서 정년을 맞은 1989년 가을까지 씌어진 작품들 가운데 90여편을 추려 ‘원점에 서서’ ‘보이는 시간’ ‘하나의 기념비로’ 등 3부로 나누어 묶었다.

모두 57편에 이르는 연작시 「원점에 서서」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봄이 돌아와도 / 평들은 고향 근처 / 산골짜기에서 헤멘다”(「고향의 변두리에서」 중) 같은 시구에서 보는 것 같

은, 현실로부터 그 모티브를 끌어내는 구체적 인 일상성의 시세계가 친근하게 펼쳐져 있다.

3부에는 일련의 축시를 비롯한 ‘행사시’들을 주로 모았다.

문학사상사 / A5신 / 268면 / 2500원

자본주의 · 공산주의

이원복 지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을 만화로 비교, 해설한 책으로 송병락교수(서울대 경제학과)의 「마음의 경제학」을 저본으로 삼아 일러스트레이터

이원복교수(덕성여대 산업미술과)가 재구성했다.

원시공산제부터 자본주의형성기까지의 역사를 개괄한 이후 사회주의사상의 성립과정을 살피고 있는 이 책은, 양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체제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던 전문적인 사회과학이론을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충실히 소화·전달했다는 데 그 의의를 평가받는 책.

동아출판사 / A5변형 / 254면 / 3600원

잠든 숲속 걸으면

정한숙 지음



현실과 생활과 행동이 한데 어우러진 체험적 진실을 지향해 온, 소설가로도 잘 알려진 작가의 신작시집.

“연주암은 아직 멀었나요 하고 물었을 때 / 선생님께서 허리 펴고 / 손끝으로 먼 하늘 가리셨습니다 / 시작이 반이야 / 자네 인생두 그렇구 / 차근차근 걸어가게”(「전화」)에서 보는 것 같은 실생활의 얘기를 어슬픈 허구나 고답적 사유에 기대지 않은 채 담담하게 펼쳐보이고 있는 작품 7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원숙한 삶이 진솔한 언어를 통해 잘 형상화됐다”는 것이 오세영이 권말의 해설에서 지적한 정한숙시의 특징.

문학사상사 / A5신 / 138면 / 2000원

韓國의 孝와 孝行

韓泰源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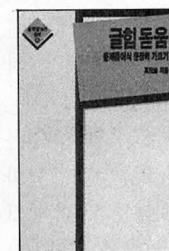
忠과 더불어 한국전통 사회의 핵심사상이었던 孝의 제반 측면을 다양하게 고찰한 책. 효란 무엇이며, 효사상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돼 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옛 선인들은 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가 등을 각각도로 파헤치는 한편, 저자가 전국을 누비며 발로 뛰어 취재한 ‘현대의 효행담’도 같이 수록했다.

‘효란 무엇인가’ ‘옛시대의 효와 효행’ ‘우리시대의 효와 효행’ 등 3부로 구성했고, 부록으로 문헌에 나타난 효행의 사례별 분석을 실었다. 南島 / A5신 / 280면 / 3800원

글힘 돈음

高廷旭 지음



글쓰기의 이론과 실재를 풍부한 예문과 문제 풀이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엮은 작문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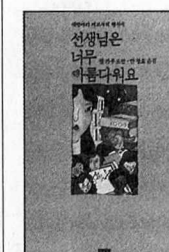
‘글쓰기에 있어 밑받침이 되는 것’ ‘좋은 글은 어떤 글인가’ ‘글쓰기의 실제’ 등 크게 3부 16장으로 나눈 가운데, 각장의 앞머리에 연습문제를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글쓰기의 기초를 터득케 하고, 이어 해답과 보기를 통해 바람직한 글의 모델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현재 성균관대학에 출강하는 젊은 국문학자.

보성사 / A5신 / 258면 / 4500원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워요

벨 카우프만 지음 / 안정효 옮김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여교사 바레트가 학급을 운영하며 겪는 온갖 사건과 소란을 일건 무질서한 듯한 에피소드들끼리의 중첩이란 독특한 양식 속에 흥미롭게 묘사한 장면

소설.

재치있고 자유분방한 미국고등학생들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우습기만 한 이야기들이 얼기설기 얽히는 가운데 가슴 뭉클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원제는 「내려오는 계단을 올라가며」로 1964년에 발표됐던 작품. 미국에서 6백만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까지 / A5신 / 264면 / 3000원

종을 치지 않는 학교

이영완 지음



전교를 통틀어 3학년 28명뿐인 강원도 평창군 첩첩산중의 벽지학교 '수동분교' 교사 이영완씨의 '교단일기' 기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두무지 마음이 무겁기

만 한 우울한 이농풍경, 날씨가 조금 흐리면 조망시설이 없어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교육현실 등이 한 벽지교사의 눈을 빌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교육과 생활이 결코 별개의 것일 수 없는 벽지의 곤궁한 삶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저자는 "벽지 수동에도 늦게나마 봄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삼신각 / A5신 / 318면 / 3500원

인간과 욕망

마르틴 콜랭 지음 / 박운영 옮김



프랑스 고교생들이 치루는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지원자들을 위한 철학텍스트로 주로 구성된 '인간과 철학' 시리즈의 제4권. 고대의 욕체와 영혼의 대답에서 시작하여 이성과 욕망의 문제, 쾌락과 인간본성의 문제, 그리고 현대의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철학을 일관된 맥락 속에 해설했다.

심오한 철학적 원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경험들에 내재된 욕망과 이성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며, 특히 무의식적 욕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설이 돋보인다.

권말에 따로 참고도서 목록을 수록해 이 분야의 보다 진전된 독서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예하 / B6 / 126면 / 1500원

밤이면요, 저는 이상하게도 슬프거든요

이치로 하타노 외 지음 / 고세훈 옮김



아이들이란 지독히 놀고 싶어하고 어른들의 세계를 아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 '이소코 하타노'와, 8

세 때 일기를 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나가던 아들 '이치로'가 서로의 소통수단으로 공책에 써서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책.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아들과, 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고치는 엄마의 사랑과 이해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글들이 언제부턴가 대화의 길이 막혀 버린 우리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사랑이 있는 진정한 삶을 일깨워준다.

예하 / A5신 / 230면 / 3000원

과학과 근대세계

A.N. 화이트헤드 지음 / 오영환 옮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등 현대자연과학의 성과를 철학에 도입시켜 철학사상사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 화이트헤드의 대표저서

「Science and the Modern World」(1926) 완역본.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이후에 과학과 철학을 결합시키는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개념 전반에 걸친 혁명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학과 철학뿐 아니라 종교와 예술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현대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

서광사 / A5신 / 340면 / 4800원

하늘님, 나라를 처음 세우시고

최래옥 지음



단군, 해모수, 금와왕, 고주몽, 유리왕, 비류와 온조, 김수로왕, 박혁거세, 견훤, 왕건 등에 얽힌 한국의 건국 신화를 재미있게 '풀어 읽은' 책.

우리 선조의 이야기이면서 후손인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한국건국신화속에 깃든 진선미, 엄격과 자비, 이상과 현실, 문제와 해결,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야기로 읽어냄으로써 우리 민족정신의 한 원형을 발견하게 한다.

제주도 건국신화인 '세 을나 이야기'까지 모두 24편의 건국신화가 소개돼 있다.

고려원 / A5신 / 310면 / 3800원

自由人

李丙昊 지음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 창설자이자 현재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원로법조인의 자서전. "신성한 법정이 시위장으로 타락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워 "늙은

메모랜덤 속에 잠자던 어제의 기억을 되살려 반성의 거울로 삼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것이 저자의 말인데, 80년 5월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위원 지명을 거부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맑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믿는 저자의 나직한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책.

백양출판사 / A5신 / 428면 / 6000원

하나님의 위대한 실책

류달영 지음



원로농학자이자 수필가로도 잘 알려진 류달영 박사의 에세이집. 저자 스스로의 표현대로 이 책에는 "시정배들의 입에서나 오르내릴 비속한 글도 있고, 높은 구름 위에서나 담론될 듯한 고고한 것도 없지

않"지만, 저자의 80년 연륜의 응집체란 점에서 인생관과 역사관, 세계관 등을 깊이있게 드러낸다.

'마지막에 잘 웃는 사람' '하나님의 큰 실책' '지구촌의 가는 길' '역사의 강물따라' '중국인들이' 등 5부로 나누었는데, 특히 「6·25수난록」과 「1·4희난일기」를 같이 실어 관심을 끈다.

자유문학사 / A5신 / 320면 / 3500원

연인들의 초상

필벽 지음 / 조기호 옮김



「대지」의 작가로 잘 알려진 필벽의 수필작가 필벽의 에세이집. 1949년 출간된 「딸들에게 사랑을 담아」의 전문과, 2차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씌어졌던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가운데 초역한 것을 한데 묶었다.

미국인으로 인생의 반을 중국에서 산 필벽은 이 책을 통해 중국과 미국사회의 남녀상을 비교·분석하면서, 현실 속에 안주하려는 미국 현대여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시대가 발전하고 의식이 변해도 언제나 인간의 본질로 남는 것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보이는 책.

을지출판사 / A5신 / 322면 / 3500원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